

Toray, 중국 PET필름 생산 대폭확대

2004년 가동 목표로 1만톤 확대 ... 생산능력 6만7000톤 체제 눈앞

일본 Toray는 중국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생산능력을 증설 계획이다.

현재 합작을 통해 1라인 6000톤 설비를 가동해 포장재료용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전자부품 등 공업재료용 수요증가에 따라 1라인 1만5000톤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에 또다른 1만톤 설비를 건설해 2004년 가동할 계획이다. 신 라인은 콘덴서 및 DFR(Dry Film Photoresist) 등 공업재료용 중 특수제품 생산으로 특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Toray는 중국의 PET필름 생산능력이 3라인 3만1000톤으로 확대되며, 중기적으로는 5라인 6만7000톤 생산체제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레이는 말레이시아에도 2005년 가동을 목표로 1라인 2만2000톤 설비를 건설해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도레이는 중국에서 PET필름을 생산하기 위해 2001년 중국 儀化集團公司와 50대50 비율로 합작투자해 江蘇省 儀征시에 儀化-Toray Polyester Film을 설립했다.

중국의 PET필름 시장은 2003년 12만-13만톤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연평균 수요가 2만-3만톤 증가하고 있다. 일본 및 한국의 전자제품 플랜트 현지 진출이 본격화되고, 특히 콘덴서, DFR, 이형(離型), 라벨 등 공업재료용 거래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수요 120만톤에 생산능력은 150만톤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용 비디오용이 DVD 등 디스크 수요의 급증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주 요인이지만,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포장재료용, 공업재료용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시장전망은 밝은 편이다.

도레이 그룹과 함께 세계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DuPont도 중기적으로 중국 플랜트의 생산능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레이는 중국 수요가 활성화됨에 따라 중국 플랜트의 증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2라인의 증설계획을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4라인(1만8000톤) 혹은 5라인(1만8000톤) 증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儀化集團公司와 합의한 상태이며, 증설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2003년 결정하기로 했다.

3라인은 특수제품 생산용으로 건설하지만, 4라인 혹은 5라인은 일상용품을 주력으로 코스트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현재 2라인 3만5000톤 생산능력을 보유한 말레이시아에서도 계속 풀가동하고 있고, 수요증가에 대응하면서 코스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가동을 목표로 2만2000톤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가정용 비디오용 수요축소로 유럽·미국·일본 생산거점에서의 생산품목 전환을 진행하는 한편, 성장시장인 아시아에서 판매확대를 꾀하고, 사업수입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Chemical Journal 2003/03/27>